강용주의 '인권 광장'

CIA 고문실태 보고서와 '윤리적 거울'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 'CIA의 테러용의자에 대한 고문실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9·11사건 이후 알 카에다 대원들을 상대로 CIA가 잠 재우지 않기, 물 고문, 성 고문, 장기간 독방 수용 등 다양하고 잔혹한 고문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수면 제한이 고문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고문 방법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심리학자가 참여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심리학자 제임스 미첼(James Mitchell)과 브루스 제슨(Bruce Jessen)이 세운 회사는 고문 프로그램을 개발한 대가로 CIA로부터 무려 81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선진 심문(enhanced interrogation)'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CIA가 자행한 심문은 이런 것입니다. 테러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불이 환하게 켜진 흰색의 텅 빈 방에 가두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큰 소음을 반복적으로 듣는 고문을 가했습니다. 고문의 목적은 '(대상자가) 반항하거나 정보 제공을 거부할 어떤 능력·의지도 남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고 이는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라는 심리학 이론을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심리학 지식을 이용하여 인간 심리의 어떤 부분이 약한지 파악해서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과학의 연구결과를 이용, 아무리 강한 신념이라도 극한의 공포와 고통을 주는 고문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고문에 심리학 연구를 도입한 제임스 미첼 박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는 그저 정부 고위관료로부터 나라를 위해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이죠.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말이었고, 국정원 해킹사건에서 되풀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죽음의 신,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고 자책합니다. 수소폭탄 개발에 반대하고 평화운동에 헌신한 그는 "우리는 대단히 끔찍한 무기를 만들었고 이는 세상을 한순간에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과학이 인간에게 유익하기만 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적 측면에서 연구된 내용들은 언제든지 옳지 않은 일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정보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비대칭적인(information asymmetry) 힘을 갖는 것이지요. 객관성을 가장한 중립이 아니라 윤리적 건강함이 늘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전문가가 가져야할 윤리의 핵심은, 강자가 약자에 대해 지켜야 될 도리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실험실은 살아있다는 관점에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곳이었다. 데이터와 숫자로만 모든 걸 다루는 곳이고, 사람도 기계의 한 부분이다. 실험실을 벗어나 자연 속에 나와 보니 사람이 살고 있었고, 새가 울고 꽃이 피어있었다. 인간의 감각으로 방사능을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의 전문적인 연구를 반핵과 반원자력 운동으로 방향 전환한 다카기 진자부로의 삶은, 오늘의 미첼 박사 같은 전문가들이 반드시 비춰 보아야할 '윤리적 거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안보와 정의를 운운하면서 고문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미국심리학회(APA) 이사회는 CIA의 고문 실태 보고서가 나온 후 7개월 동안 자체 조사를 한 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내부 지침을 검토해 회원들이 심문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나 중앙정보국(CIA)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 혐의자를 심문할 때, 심리학회 회원들이 관여하면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묻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고문이라는 부끄러운 모습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그 잘못을 바로 잡는 미국과 심리학회의 자기 반성의 모습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강함과 함께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도 겹쳐집니다.

〈광주 트라우마센터장〉

종교칼럼

기도의 힘

일 담
강진 백련사 주지

며칠 전에 해남의 불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고3 자녀를 둔 불자들이었는데 인근에 수능 백일기도를 하는 사찰이 없다면서 스님께서 해 주시면 자신들도 동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심의 사찰은 대학입시 때마다 기도를 하는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이곳 시골은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수능기도를 하는 사찰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련사에서는 처음으로 수능 백일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기도를 해도 소원성취가 되기 쉽지 않은데 흔들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두 번째로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찰에서는 늘 정해진 시간에 대웅보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마음은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평쯤 되는 공간에 방석을 놓고 조그마한 원불을 모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일정한 장소와 시간이 마련되면 기도의 효과는 더욱 개선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가능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반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는 그만큼 나태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00일이란 긴 시간입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듯이 어떤 경우에는 삼일도 약속을 지키기 힘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을 자신을 격려하고 채찍질해줄 도반입니다. 도반들과 함께 일정한 날을 정해서 사찰을 찾아 스님을 찾아뵙고 기도를 하면 100일 기도가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 기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마장(魔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꼭 기도를 해야 할 시간에 중요한 약속들이 잡히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한 나와의 약속, 혹은 부처님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무엇이 있는지 잘 헤아려서 기도 정진을 해야 합니다.

수능 백일기도를 하는 분들은 기도를 통해 큰 장애 없이 아이들의 노력만큼 만족한 결과가 나오길 기원할 것입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기도를 하면 그건 벌써 어긋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비우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을 비우면 내가 그토록 놓지 못했던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감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법에서 미래는 지금 현재 내가 하는 행위의 결과이고 현재는 과거의 결과물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변화되고 심지어는 과거 또한 바뀝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자신이 바뀌고 주변이 달라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 고

통합 광주·전남연구원장의 조건

이 영 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광주와 전남에는 두 지자체가 설립한 각종 연구원이 있다. 이 중에서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연구원은 아마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일 것이다. 두 연구원의 통합이 결정되고, 새로운 통합연구원의 원장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게 된다. 통합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누가 원장이 될 것인지에 대해 광주시, 전남도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언론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통합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추천위원회는 1차 응모자 중 적임자를 찾지 못했고 2차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초대 통합 원장이라는 상징성 등을 감안해 중량감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고 한다. 그런데, 중량감 있는 인사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혹시 그 기준이 중앙정부의 장관급 경력자나 전국적으로 알려진 연구기관의 장을 역임한 자를 의미한다면, 선출위원회는 선출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연구원의 성격부터 따져보자. 광역자치단체의 연구원은 해당 지역의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전략과 대안을 연구하는 곳이다. 통합연구원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두뇌역할과 정책보좌를 하는 곳이다. 중앙의 큰 구도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지역의 독자적인 발전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강조되는 분권화의 시대에는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연구원의 성격을 고려한 원장의 선출기준은 후보자의 전문성, 경영능력, 리더십,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다. 흔히 거론되는 '덕망 있고, 학식 있는 자'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적절한 기준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지역연구원의 성격에 맞추어 이 기준들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이다. 이 기준을 3소, 즉 소신(所信), 소견(所見), 소통(疏通)으로 다시 풀어서 적용하여, 누가 지역연구원장에게 적합한지를 알아보자.

첫째, 소신. 이는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의미한다. 연구원장은 지역사회 발전의 비전을 오랫동안 사색하고 연구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의 비전이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해당 지역에 오래 살면서 경험하고 성찰한 자만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소위 중량감 있는 중앙부처의 고위관료 출신이나 전국적인 연구원의 경력자가 갖기 어려운 덕목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고위행정직이나 해당 기관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온 지역발전 전공의 교수를 선호하는 것은 바로 이들만이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견. 지역발전의 비전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바꾸고, 실행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연구해 온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그런 대안의 연구를 지휘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을 말한다. 발전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곳이다. 발전의 비전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지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의 실제에 밝고, 오랜 연구를 한 식견이 필요하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선호되는 이유다. 고위공무원 중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들이 비록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다양한 분야의 접근방식을 이해하고, 각 분야의 연구를 지휘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셋째, 소통. 대내적, 대외적 소통능력을 말한다. 지역의 정부기관, 학술기관, 언론기관,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터놓고 얘기를 듣고, 논리를 만들고, 설득할 수 있는 대외적인 소통능력과 조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대내적 소통능력이 그것이다. 이 덕목 역시 지역의 연구자가 소위 중량감 있는 인사보다 훨씬 잘 갖추고 있다. 중량감 있는 인사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지 않았으면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을 것이다. 대내적 소통능력의 경우에도, 중앙부처의 고위직 경험이 조직 내 화합과 조직원의 역량 강화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연구원장의 세 가지 덕목(소신, 소견, 소통)과 지역발전의 두뇌와 정책보좌기능이라는 지역연구원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연구원의 원장에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애정을 갖고, 연구하고 고민한 연구자가 적격이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의 추천위원회만 유독 중앙에서 활동한 중량감 있는 자를 강조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중앙부처와의 관계형성에 탁월한 광역기관장에게 실례를 범하는 것이며, 지역의 우수한 연구자를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지역연구원장 선출의 기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때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혁신 성공하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20%를 물갈이하는 공천 혁신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전날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을 20일 당무위에서 표결 없이 통과시켜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현역 의원 20% 물갈이'는 혁신위가 그동안 8차례 마련한 혁신안 가운데 가장 획기적이다. 공천 혁신안을 보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평가해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하되 전원 외부인사로 꾸리고 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하도록 했다.

평가 항목은 지지도 여론조사와 의정활동 공약이행평가를 35%씩, 의원간 다면평가·선거 기여도 평가·지역구 활동 평가를 각각 10%씩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는 임기 중간과 선거 6개월 전에 한번씩 실시하고 중간평가를 30%, 최종평가를 70% 반영하기로 했다.

공천 혁신안 내용만 보면 표면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비노와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비노와 호남의원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혁신위 출범과 이후 내놓은 혁신안이 친노 계파의 입김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번 공천 혁신안에 대해서도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평가위원들을 주류인 친노측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천 혁신에 성공하려면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씻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새누리당처럼 주류인 친노측 인사부터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과 같은 진정성을 보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호남과 비노 중진들도 편한 텃밭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겠다는 각오로 지역구를 던지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공천 혁신안에 반대하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전남 FTA 피해 중장기 대책 서둘러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전남 농업생산액이 연평균 20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올해까지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3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전남 농촌 경제가 FTA 체결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남도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공개한 'FTA 대응 전략 연구용역' 중간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연간 피해액이 206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국 피해액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수치로 농민들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52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재배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도 FTA가 체결돼 국내 농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FTA 체결국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농산물 80%를 이들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입은 320억2000만 달러, 반면 수출은 64억1000만 달러로 무려 256억10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최근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중국산 참깨, 스페인산 마늘, 미국산 체리 등 수입 농수산물이 우리 농산물을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가 평균소득이 하락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농촌 경제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가소득 제고 및 경영 안정화 방안 등 전남 미래 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수출전문단지와 정예 농업인력을 집중 육성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無 等 鼓

삶을 기록하는 것

며칠 전 만난 지인이 나이 들면 꼭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작은 책으로 만들어 주는 일이다. "내 이야기를 책으로 엮으면 수십권 분량"이라는 어른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사연 없는 이들은 없을 터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책을 펴내려면 무엇보다 '듣는 게' 먼저다. 누군가가 진득하게, 오랜 시간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이들이 많지 않을까.

이야기를 듣다 최근 재미있게 본 일본 드라마 '여기에 있는 행복'이 생각났다.

도쿄에 살던 주인공이 후쿠오카의 작은 어촌 마을을 찾는다. 초등학교 시절 전학온 친구의 고향이다. 2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세상을 떠난 친구 대신 그를 맞아준 이는 친구의 할머니다.

세상의 낙오자처럼 살아가던 28세 청년 히로유키와 72세 할머니 후쿠코의 동거가 시작된다. 매일 동네 이곳 저곳을 걷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할머니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담담히 들려준다. 할머니는 '늙은이의 재미없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히로유키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할머니의 이야기에 오히려 큰 위로를 받는다.

떠나기 전날 히로유키는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여기에 있는 행복'을 선물한다.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몰려 오고 "내 이야기를 책으로 써달라"는,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도 써달라"는 주문이 쏟아진다. 드라마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작품 속 주인공은 드라마가 촬영된 그 마을에서 결혼해 책을 쓰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광주시 서구청은 '어르신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모집, 매주 한차례씩 자서전 쓰기 교육 과정을 거쳐 연말에 책을 발간할 예정이다. 아마도 참가자들은 스스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새삼스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요즘 광주의 오래된 공간을 연재중이다. 취재에 응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지 않음을 아쉬워했다.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기록하는 것, 누군가가 한 사람의 살아온 발자취를 기록하는 것은 진정 의미 있는 일이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